

SPECIAL THEME

내가 본 한국석유화학산업Ⅲ



Technology



한국 석유화학산업 반세기 - 정범식 KPIA 명예회장에게 듣다

# 내가 본 한국석유화학산업 Ⅲ

정범식 | KPIA 명예회장 · 롯데케미칼 총괄사장



Science

Human

Communication

Digital



국민행복시대, 행복국가, 좋은 말이다. 그런데 와 닿는 게 그다지 없다.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연결이 쉽지 않다. 무릉도원(유토피아)을 건설하지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는 듯 하다. 무상보육, 무상의료, 수없는 복지요구가 난무한다. 우리가 감당할 복지 수준은 어디까지 일까? 지금의 우리가 4만불 사회의 복지를 요구하면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을까. 그것뿐인가, '화평법', '화관법'은 한국 기간산업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정부 경제장관은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고 했다. 그러나 "고령화가 선진국의 70% 정도이고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이미 그다지 큰 차이 없는 집행이다" 라고 한다.

우린 정말 가난했었다. 보리고개, 걸식아동...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말이었다. 폐허에서 2만불 사회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지금 대기업과 부자를 옥죄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본다. 정말 우린 여기까지인가?

- 노자 도덕경 無爲(무위)를 다시 음미해 보자.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육과 노사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특히 매년 바뀐다시피 하는 대학 입시와 끝없는 요구와 투쟁에 길들여진 대기업 노조 문제가 아닐까. 우선 여기부터 無爲를 실시하자. 대학지원 줄이고(부실대학은 끊고), 정책연구지원 줄이고, 사회단체 지원 줄이고, 정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노사 문제는 완전 자율에 맡기고, 그리고 행동에 따른 그 결과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 공짜 점심은 없는 사회를 지향하자. 다시 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시장경제, 민간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전자산업에서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이 각 분야에서 나오게 하자.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다.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석유화학 업계에도 글로벌 기업이 나오고, 정유, 원자력 등 에너지 산업에서도 또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관련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면 보다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어 더 빨리 선진사회에 진입하고, 사회갈등의 많은 부분을 흡수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 세대에 국민소득 백불이 채 안된 사회에서 2만불 사회를, 그것도 민주사회를 만든 우리가 아닌가. 無에서 有를 창조한 우리인데 無爲는 이보다 훨씬 쉬운 것 아닌가?

- 정부가 창조경제정책을 잘 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만 있다면야 더 말할 것이 없겠다. 그러나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는 옛말의 유래가 생각난다. 행복국가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가치관이 필요하다.

'안전이 증가하는 사회, 신뢰가 증가하는 사회, 투명성이 증가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열역학에 나오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처럼), 그런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성장은 주춤거리고, 대출 미취입은 늘고, 무상세트에 채무원전 탕감까지 나온다. 우리가 정상을 회복하는 데에는 얼마나 더 큰 희생이 따라야 할까.

-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지금의 한국 사회와 같은 혼란과 오일쇼크 격랑의 파도를 넘어왔다. 그런데도 '90년대 들어 또 다시 생존까지 위협받게 된다.

## 90년대

### ◆ 다시 겪는 試鍊

이라크의 쿠웨이크 점령으로 걸프전('91.1월)이 발발한다. 유가는 폭등하고 시장은 침체한다. 한국에서는 신증설 제품 물량이 일시에 출하된다.

[표 1] 한국 에틸렌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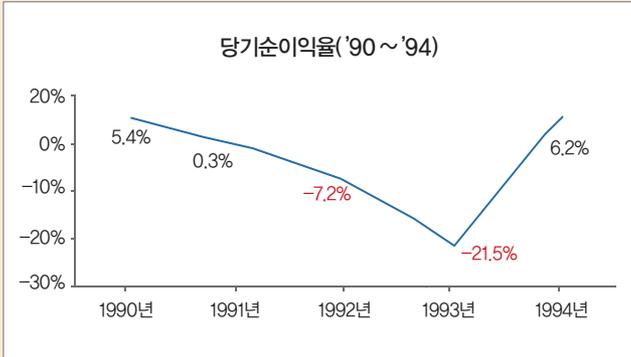
(단위 : 톤/년)

구분	1990년	1991년	1992년
생산량	1,065	1,567	2,810
전년비	161%	147%	179%

제품가격은 폭락하여 원료비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93년 호남석유화학은 △688억원 적자(영업이익율△6.8%)가 되어 큰 위기를 맞고, 더 어려운 대한유화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대덕단지의 연구소는 젊은 요원은 물론 중견 간부까지 이탈이 확산하다.

[그림 1] 1990년대 호남석유화학 경영 상황



‘과당경쟁을 지양하자, 공급량을 자율 조정하자’ 업체와 정부의 논의는 빈번하다. 결과는 별로였다. 워낙 신규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니 적절한 실현 방안을 찾지 못한다.

결프전 조기 종식 이후 다시 유가는 안정세로 돌아서고 원전가동 중단에 따라 가스 발전이 점증하여 가스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액체원료의 석유화학은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게 된다.

#### ◆ 경쟁과協力

여수석유화학단지 주변은 수심이 얕아 대형선박 접안이 불가능하다. 십여 km 떨어진 낙포에 납사 수입기지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당시 호남정유의 LPG 신규저장 예정 부지였으나 한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관련 법규를 잘 활용하여 강제 수용한다. 호남정유가 크게 반발하여 납사 수입기지 건설에 차질이 발생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호남정유 경영진의 대국적인 양해로 늦게나마 각 사 5만 kl×4기, 총 16기의 세계 최대의 납사 저장설비와 10만톤 부두를 완성하게 된다. ('92.12월)

에틸렌 공장을 먼저 완공('91.12월)한 호남석유화학은 자체 대용량 저장설비 없이 호남정유와 이웃 호남에틸렌의 저장 설비 도움을 받아 공장을 가동한다.

지금도 이 전통은 이어져오고 있으며, 여수지역 에틸렌 4사(호남에틸렌, 호남석유화학, LG화학, 한양화학)는 제품은 시장에서 경쟁하되, 공장 운영은 상호 협력하여 거의 같은 회사 수준으로 운영한다.

납사 수입 탱크, 에틸렌 등 기초 유분 저장 설비 공용은 물론 상호 물물교환거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최적화하고, 안전 방재설비 역시 공동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효율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

[그림 2] 납사 입고 Route



◆ 새로운 增設 분

석유화학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업계 경영도 정상화되기 시작한다.

이에 발빠르게 현대와 삼성은 제2 공장 건설에 착수한다. 현대는 최고경영진이 미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장기 발주 기기는 조기에 발주를 마무리한다. 에틸렌 연간 60만톤급의 대형 석유화학단지의 일괄 건설이다. 삼성은 방향족 사업에 주력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리포머, PX, SM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과거 위기감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기존업체는 추이를 지켜보기만 한다.

그 중 호남석유화학은 잉여 에틸렌으로 가능한 제3 EG 공장을 건설한다. 아직 EG 가격은 회복되지 않아 사업 추진 결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일단 착공한다.

호남과 이웃한 대림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위험을 분산하고자 한다. 1차로 에틸렌 공장 증설은 대림이 수행하고 PE/PP 공장 건설은 호남석유에서 수행한다. 수익 배분은 PE/PP 판매액에서 원료 납사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배분하기로 합의한다. 1차 사업이 궤도에 진입하면 2차로 호남이 에틸렌 공장을, 대림이 PE/PP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다. 일년 여의 협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곧이어 IMF 금융위기가 온다. 계약 실행이 어려워진다. 그래도 호남은 그 계약에 따른 공장을 착공하여 IMF 시대 임에도 PE/PP 공장을 완공한다.

◆ IMF 시대

한보철강 부도 사태에서부터 한국경제는 요동한다. 급기야 보유 외화는 바닥을 보이고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된다. IMF는 고금리 정책을 실시하여 지불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게 한다.

차입금이 많은 삼성과 현대는 건달 수가 없게 되고 호남석유화학 등 극히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가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 대림도 한화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부채를 조정하여 주력 사업을 살리기 위하여 팔릴만한 것은 무엇이든 처분하는 분위기다. 대림과 한화는 석유화학부문을 합하여 에틸렌을 공동 경영(현 YNCC)하고 계열공장은 주력 부문을 통합 교환하여 독자 경영체제(현 대림석유화학/한화케미칼)를 구축한다.

당시 신설 법인에 한하여 자산을 재평가 할 수 있어 재평가를 통하여 자산을 증대시키면 부채비율 축소 효과가 있기에 가능했던 조치인 듯 하다. 삼성과 현대는 통합을 위한 추진팀을 전경련 내에 발족한다. 국내외 매각, 여수, 울산, 서산 단지별 통합 운영 등 여러 방안이 검토 대상이 된다. 실행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삼성은 토탈의 외자를 유치하여 삼성토탈로 거듭나고 현대는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 서산단지의 구조조정

▶ 유틸리티 설비

- 물처리 : 2000년 싱가포르 SPI社로 매각
- 스팀 : 2000년 싱가포르 SPI社로 매각
- 공기분리공장 : 2000년 영국 BOC社로 매각(현 Linde社)

▶ 삼성종합화학의 PTA공장

- PTA 연산 36만톤 공장 → 2000년 삼성석유화학으로 매각

▶ 삼성토탈의 설립

- 2003년, 아토피나와 합작하여 삼성아토피나 출범(2004년, 삼성토탈로 사명변경)  
→ 삼성종합화학 50%(현물출자), 아토피나(프랑스 토탈 계열사) 50% 출자



▶ 현대석유화학 채권단 관리(2001.7.13~2003.6.26)

주채권은행 :한빛은행(現 우리은행)

- 물처리 : 2000년 프랑스 비벤디社로 매각(현 Linde社)
- 스팀 : 1999년 영국 SITHE社로 매각
- 공기분리공장 : 1999년 영국 BOC社로 매각(현 Linde社)
- PVC,VCM : 2000년 LG화학으로 매각

◆ 여수단지의 구조조정

- 대림과 한화의 에틸렌 통합 (YNCC의 출범)
- PE/PP 사업교환
  - PE사업 :대림(LLDPE) → 한화
  - PP사업 :한화 → 대림

이후 국내 유화사의 주요 M&A 사례를 정리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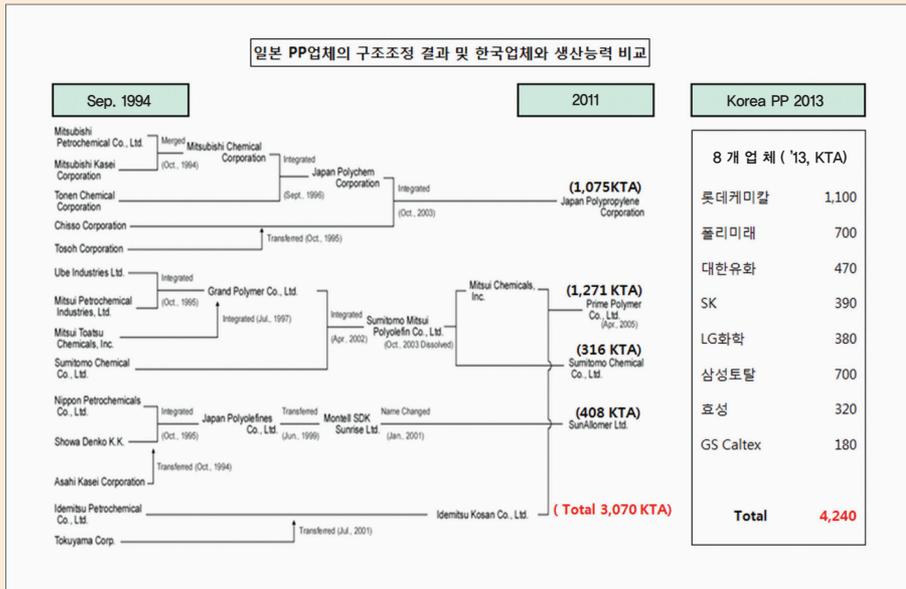
[표 2] 국내유화사 주요 M&A 실적

인수년도	Target Company	Product	Buyer	Seller	Deal Type	Deal Value
1998	동서석유화학	AN	아사히카세이	한일	지분인수	
1999	여천NCC	에틸렌	대림/한화	대림/한화	현물출자	USD 1,500 mil
2000	한화석유화학		한국바스프		지분인수(14.2%)	USD 106 mil
2000	휴비스	화학섬유	SK케미칼/삼양사	SK케미칼/삼양사	현물출자	USD 750 mil
2001	SK옥시케미칼	SM	한국바스프	SK	SM공장매각	USD 169 mil
2002	코리아PTG	PTMEG	애경유화	KTBN트워크	지분인수(30%)	USD 22.3 mil
2003	현대석유화학		롯데케미칼/LG화학		지분인수	USD 600 mil
2004	삼성종합화학		토탈그룹			
2004	KP케미칼	PX, PTA	롯데케미칼		지분인수(53.8%)	USD 161.7 mil
2006	휴켄스	정밀화학	태광산업	농협	지분인수(46%)	USD 84 mil
2007	wlre	효성		The Goodyear	사업양수도	USD 80 mil
2009	Pakistan PTA	TPA	KP케미칼		지분인수(75.01%)	USD 79 mil
2010	LUCK	PET	KP케미칼		자산양수도	USD 23 mil
2010	Solarfun Power		한화케미칼		지분인수(99.99%)	USD 370 mil
2010	Titan Chemical	에틸렌	롯데케미칼		지분인수(100%)	USD 1,280 mil
2010	LG Dow Polycarbonate	PC	LG화학	DOW	지분인수(50%)	USD 65 mil
2012	Sah petroleum		SK루브리컨츠		지분인수(87%)	USD 80 mil

한국석유화학산업은 IMF 시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을 하였으나, 아직은 진행형이다.

구미는 80년대 초반부터 업계 재편하기 시작하여 30년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재편되었으며, 일본 역시 90년대 들어 계열사간 통합으로 미쓰이화학(미쓰이석유화학과 미쓰이도야츠 통합), 미쓰비시화학(미쓰비시유화, 미쓰비시화학 통합)이 새출발하고, 그 후 제품별로 또 다시 통합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PP사업 재편 과정을 정리한다. '94년도 14개 사업자는 현재 4개 회사로 재편된다.

[그림 4] 일본 PP 구조조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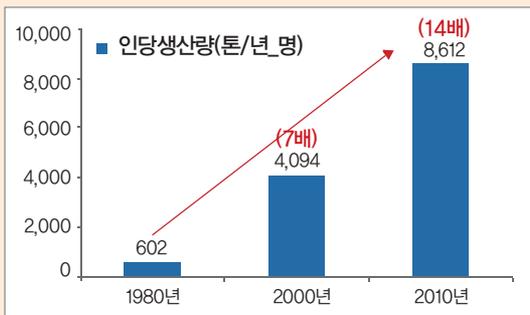
◆ 호남석유화학의 부상

차입금이 과다한 기업은 IMF 파고를 넘기에는 힘이 벅차다. 대한유화의 법정관리, 대림/한화의 석유화학부문 통합, 국내 제일의 석유화학업체인 현대석유화학의 채권단 관리 등이 그렇다.

호남의 HDPE 공장은 연산 7만톤 규모로 일본 미쓰이의 기술로 출발한다. 그 후 증설은 조정실, 용매저장·처리 등 부대시설은 그대로 활용하여 연산 40만톤 규모로 확장한다. SPE공장(두번째 PE공장)은 첫번째 공장 완공(1979년) 10년 후 2년만에 거쳐 건설(1988~89년)하였는데, 설계비는 종전 공장의 30% 수준이고, 총 건설비 역시 50% 수준으로 완공할 수 있었다. 그간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기술과 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한 결과이다. 생산성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또 하나의 호남석유화학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당시 PE과장으로 그 후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상의 품질, 최고의 생산성(노동강도 증가)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묵묵히 이를 따라 목표를 달성한 우리 직원들을 지금도 고맙게 생각한다.

[그림 5] 인당 생산성 변화(여수PE공장)



구분	1980년	2000년	2010년
생산량(톤/년)	43,316	253,836	413,386
PE당당 인원(명)	72	62	48

지금은 이를 바탕으로 자체 제조 공정기술을 확립, 외국(우즈베키스탄)에 기술 수출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 한편, 호남석유화학은 자기 자금으로 공장을 건설한다. 특히 3EG 공장은 착공 당시의 수익성 우려와는 달리 완공 시점에 제값가가 폭등한다. 가동 일년 여 만에 건설비를 회수하고, 그 이후 회사수익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6] 3EG 공장 수익(호남석유화학)



설계용량은 외국 기본설계를 폐기하고 국내에서 다시 하여 최대한으로 키운다.

대림과의 합동으로 추진하던 3PE, 3PP 공장도 대림의 계약이행여부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추진 완공한다.

이어서 여수의 에틸렌 공장을 Revamping하여 원료-제품 일괄 생산체제를 완성한다. 외환위기 절정기에는 모든 기업이 수입 대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수 척의 납사 선박이 서산 바다에 떠 있고 대금 결제를 대기한다. 현대의 어느 임원은 그 때 1,000억 원만 있었다라든 채권단 관리에 넘어가지 않고 연이은 업계 호황을 맞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직도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런 시기에 호남석유화학은 일본 롯데의 재정 보증을 받아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 때 마침 3PE/3PP 주요기기 발주 시기인데 한국산업은행(당시는 국책은행)의 L/C도 받을 수가 없었다. 그 당시 '외국은 한국을 국가 부도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새삼 놀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호남석유화학은 당초 에틸렌 8사 중 7번째 정도의 규모로 약체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IMF를 경과하면서 한국석유화학의 선두 그룹으로 부상한다.

2002년까지 한국 주요 석유화학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 주요 석유화학 매출액

(단위 : 억원)

구분	대한석유공사 (현 SK종합화학)	대한유화공업	현대석유화학 (현 롯데케미칼/LG화학)	삼성종합화학 (현 삼성토탈)	호남에틸렌 (현 YNCC)	호남석유화학 (현 롯데케미칼)	력기화학 (현 LG화학)	한양화학 (현 한화케미칼)	한국합성고무공업 (현 금호석유화학)
'80년	19,676	781	-	-	1,771	1,004	1,877	1,537	492
'92년	47,209	2,769	3,435	3,952	5,607	3,080	5,840	4,374	2,184
'02년	133,881	6,083	19,618	17,286	18,242	12,297	54,331	15,669	10,678

\* 대한석유공사, 호남에틸렌, 력기화학 등 3개사 매출액은 비석유화학부문 매출 포함

STORY 이야기 하나.

1 HighRisk/ High Return- 3EG공장(당시 기획담당 임원)

대규모 물량 출시, 1992년 걸프전쟁, 또다시 시련기를 맞게 되었다(1993년 매출 3,200억원, 적자 688억원). 그러나 1995년에 들어 경기가 회복되자 또다시 신규사업계획이 꿈틀거렸다. 발빠른 현대는 제2기 신설을, 삼성은 BTX와 SM 증설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신규사업이 마땅치가 않았다. 당시 황각규 차장이 제안을 했다. 아무도 안하는 EG공장을 짓자고, “원료인 에틸렌도 있겠다, 어쨌든 국내수요는 있는 거 아니냐”며 EG공장을 제안했다. 당시 기획담당 중역은 신 부회장이었다. “납사와 MEG 운임면에서 경쟁력이 어떤가?” 납사-에틸렌-MEG(한국) 루트와 Saudi MEG ▶ 한국 루트는 \$40~50의 운임 차이가 있었다. “최악의 경우 최소한의 마진은 있겠군. 해보자” 이렇게 3EG 프로젝트가 탄생했다.

당시 실무진은 국제 규모인 20만톤과 잉여원료에 맞춘 12만톤, 이렇게 2개의 사업계획을 작성했다. 연산 12만톤, 예산 850억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라이선서의 설계서를 변경하여 삼성엔지니어링이 다시 설계했다. 규모를 15만톤으로 늘렸다. 산소를 외부에서 조달하고 그 돈으로 공장을 최대로 키운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연산 25만톤의 공장이 설계되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국내 순위에서도 1위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었다.

공장은 순조롭게 가동되어 연산 16만톤 공장으로 준공되었다. 1997년 공장 가동 시점에 맞추어 MEG 가격이 폭등했다. 이후 2005년 현재까지 당사 수익의 큰 원천이 되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사업’, ‘적은 가능성’, ‘큰 도전’의 성공작이었다.

STORY 이야기 둘.

2 충주비료 <한국경제신문\_한경제세이(2011.4.21)>

충주비료는 현재 산업계에서 사라진 이름이지만 한국 화학산업의 요람이었다. 한국은 산업화를 화학공업에서 시작했다. 철강, 그리고 조선, 자동차, 기계, 생활가전이 뒤를 이어 오늘날 현대 산업 국가가 됐다. 충주비료공장은 어쩌면 한국 현대화의 시발점이라.

독립국가 건설 직후인 1949년 국제 총 수입은 고작 1,200만원이었다고 한다. 국가살림, 국방비 거의 전액을 유엔과 미국 원조에 의존했다. 1950년대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은 50달러 수준이었다. 식량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과일, 야채 등 먹을거리 자체가 태부족한 절대 빈곤상황이었다. 춘궁기에는 말 그대로 초근목피로 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화학비료다. 식량을 증산하고 과일과 야채를 가꿀 질소 비료였다. 미국 원조로 화학비료 공장을 지었다. 그게 바로 충주비료공장이다.

충주는 중원의 땅이다. 남한에서 어딜 가나 가장 가까운 거리다. 또 남한강의 물을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한국 최초로 현대화된 화학 비료 공장이 가동되지 시작한다. 이곳의 공장 운전 기술, 거대장치와 설비의 유지보수, 자동화 설비, 공장 건설 경험 등이 뒤이어 타 산업까지 확산되어 갔다. 충주공장(제일비료)은 영남화학(3비), 진해화학(4비), 충주신공장(6비), 남해화학(7비)의 건설 주체가 된다. 또 한국 최초의 석유화학단지인 울산석유화학단지에 당시의 한양화학, 동서석유화학, 한국카프로라탐 지원 공단을 건설하고 이어 1970년대 중화학공업 핵심사업으로 여수석유화학단지에 들어선 당시 호남에틸렌, 호남석유화학의 건설 주체가 되기도 했다. 우리의 화학비료사업은 아쉽게도 현재는 남해화학만 남고 소멸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술 인력의 저변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석유화학산업은 그 후 민영화되었고 많은 민간기업이 투자, 성장시켜 세계 제5위까지 확대 발전되었다. 미국, 중국, 사우디, 일본, 한국 순이다. 유럽 강국도, 대국도 우리가 앞질렀다. 작년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매출

약 69조원을 웃돌았다. 또 다른 산업 소재의 한 축인 철강산업보다 더 큰 산업이다. 세계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있고, 그 중 한국은 국토면적이 세계 100위권이며, 인구는 26위 전후다. 그러나 현대 산업분야에서는 세계 1·2위를 다투는 조선, 반도체가 있고, 5·6위권에는 석유화학, 철강, 정유, 자동차산업 등이 있다. 이 근처에는 50년 전 충주비료공장의 기술인력이 있었다. 지금은 충주호가 만들어지고 주변은 완전히 상전벽해가 되었다. 그 옛날 충주공장의 요소비료제립탑은 아직도 기념물로 남아 있다. 집사람 고향이 그곳이라 가끔 충주에 들른다. 제립탑을 보면 신입사원 시절 능숙했던 선배와 동료들의 옛 모습, 당시 목행, 남한강 달천과 합수머리 그리고 탄금대 등의 산천풍경이 아스라히 새롭게 다가온다.

STORY 이야기 셋.

3 목욕탕 수건 한 장 <한국경제신문\_한경제세이(2011.3.24)>

일본 대지진의 참담함에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말을 잃는다. 그런 와중에도 일본 국민들의 침착함, 인내, 질서는 또 다른 신선한 감격을 준다. 서방언론은 일본의 시민의식이 인류의 정신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평가했다. 우리라면 어떨을까. 울음바다, 농장대응, 준비부족이 화를 키웠다는 등의 보도(?)가 줄을 잊지 않았을까.

10여년 전 일본 골프장 사우나에서의 경험이 생각났다. 욕실 내에서 젖은 수건을 두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욕실 어디에도 젖은 수건이 보이지 않았다. 잠시 당황해 옆 사람을 지켜보았다. 젖은 수건을 꼭 짜서 젖은 몸을 닦고 그대로 들고 가는 게 아닌가!

마른 수건 한 장.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아직 극히 일부의 골프장을 빼고는 욕실에 젖은 수건들이 여기저기 뒹군다. 이날 이후 한 번 목욕에 이태리타일 한 장과 마른 수건 한 장만 쓰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했지만 지금은 익숙하다.

수건을 세탁하는 데 드는 물, 세제, 전기, 인력 등을 생각하기로 했다. 일례로 우리 국민 모두가 1주일에 수건 한 장씩만 아껴 쓴다고 가정해보자. 그 세탁비용은 연간 1,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것을 자원 절약의 관점에서 보자.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입법 등으로 우리 사회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온실가스 주범인 탄산가스는 화산폭발, 산불, 지구온도 상승에 따른 자연에서의 방출 등 인간이 통제 못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 정도는 가정에서의 취사와 난방, 사업장과 상업용 건물유지, 교통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화학·철강·제지 등 산업에서 쓴다. 이를 통해 배출되는 CO<sub>2</sub>량은 연간 약 6억톤에 달한다.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감축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산업체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중국에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어떻게 그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는가이다. 비용분담, 다시 말해 돈의 배분인데 그리 간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논점은 시장 기능이 더 효율적일까, 정부 관리가 더 나올까의 문제로 귀착된다. 더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 물 한 방울, 종이 한 장의 절약과 내의 착용의 생활화 등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자동차의 연비, 대중교통시스템 개선에 지혜를 모으자. 그리고 발전소와 산업체에서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그 해답을 우선 구해야 하지 않을까. 상대방의 희생을 요구하기보다 모두가 고통을 조금씩 분담한다면 우리의 목표인 환경 보존과 산업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만 할까. 